

## 인디애나大 켈리스쿨 학장 및 졸업생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릴레이 참가

### 즉시 자료 공개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인디애나대학교 켈리스쿨(경영대학원) 아이들린 케스너 학장은 오는 1 월 13 일 한국을 방문해 서울에서 진행되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 봉송 릴레이에 두 명의 인디애나대 졸업생과 함께 참가한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릴레이는 1 월 13 일 오전 11 시 반에서 12 시까지 서울 영등포구에서 진행된다. 케스너 학장은 중국 및 한국 코카콜라 회사 대표 커티스 퍼거슨 회장(1980 년 켈리스쿨 졸업)에게 성화를 전달받은 후, 또 다른 인디애나대 동문인 한독제약 김영진 회장(1984 년 켈리스쿨 졸업)에게 성화를 넘긴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성화 봉송은 대한민국 전역(총 2,018 킬로미터)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수 천명의 사람들이 올림픽 성화를 봉송한다. 성화 봉송 주자에는 아시아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박지성 선수, 美 텍사스 레인저 야구팀의 추신수 선수,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 팀의 최연소 선수인 유명 선수, 그리고 휴보(HUBO)라고 이름 붙여진 휴머노이드 로봇 등이 있다.

케스너 학장은 “이와 같은 자리에 초청 받은 것 자체가 큰 영광입니다. 문화와 사람들이 연결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스포츠로 올림픽 경기는 매우 좋은 예입니다. 또한 이는 비즈니스와 교육을 통해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켈리스쿨 전략 경영 분야 Frank P. Popoff 석좌교수를 맡고 있는 케스너 학장은 말한다.

케스너 학장은 또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분야 - 비즈니스와 교육 - 를 서로 연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제가 이 성화 봉송 릴레이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가 인디애나 대학교, 그리고 켈리스쿨이 전 세계에, 예를 들어, 한국의 명문 대학과 강력한 연결고리를 구축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입니다. 두 학교가 파트너십은 인디애나대학교가 문화와 국가를 넘어 명성을 쌓아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디애나대학교와 그에 속한 켈리스쿨(경영대학원), 국제대학원 및 제이콥 음악대학은 여러 단계로 한국과 연관되어 있다. 본 대학의 동문 중 6,600 명 이상이 한국인이며, 그 중에서 천 명 이상이 서울에 거주한다. 인디애나대학교 동문회 한국 협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디애나대 동문협회 중 하나로 최근 설립 30 주년을 기념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 캠퍼스에는 800 명 이상의 한국인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인디애나대학교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성균관대학교의 파트너십은 인디애나대학교의 여러 성공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중 하나이다. 두 학교는 상급 관리자 및 경영자들 위한 복수학위과정인 MBA 프로그램(Kelley – SKK GSB Executive MBA)을 공동운영하고 있다. 또한 켈리스쿨은 2004 년 성균관대학교가 한국 최초로 100% 영어로만 운영되는 글로벌 MBA 과정을 설립하는데 조력 하였다. 성균관대학교 SKK Graduate School of Business (SKK GSB) 이재하 원장은 켈리스쿨에서 재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켈리스쿨에는 현재 한국 출신의 교수진이 2 명이 재직하고 있는데 경영학과의 진문균 조교수와 경제/공공정책학과의 서보영 조교수가 이들이다.

한국 재단의 김영진 회장과 다른 두 켈리스쿨의 한국인 동문들은 석좌교수 기금을 마련하여 국제대학원의 초대 한국학 연구소장을 추대하는 것에 일조하였다. 또한, 김영진 회장은 국제대학원의 한국학연구소를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인디애나 대학교는 1962 년 미 중서부 지역 최초로 한국어 강의를 시작했다.

이번에 케스너 학장이 성화 봉송 릴레이에 참여하게 된 것은 켈리스쿨과 올림픽 후원사인 코카콜라와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디애나대학교 동문인 퍼거슨 회장은 코카콜라가 7 년 동안 북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의 젊은 리더 100 여명을 매년 초청하여 한달 간 켈리스쿨에서 비즈니스 사례들과 창업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퍼거슨 회장은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중요한 동문입니다. 그가 가는 곳으로 켈리스쿨도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의 코카콜라 지사를 담당할 때는 켈리스쿨이 중동 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지금은 켈리스쿨이 아시아 지역들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동문입니다. 저희는 퍼거슨 회장, 그리고 김영진 회장과 같은 우수한 동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커다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케스너 학장은 말했다.

케스너 학장은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2 월에는 성균관대학교 SKK GSB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찾으며 그 전에는 도쿄에서 있는 켈리스쿨의 글로벌 학장 운영협의회에 참가 예정이다.

케스너 학장은 한국은 매우 생동감이 넘치는 나라라고 말한다. " 미국인들은 한국을 매우 단일적인 사회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오랜 기간 자주 방문하다 보면 한국인들은 각각의 상이함과 미묘한 차이들이 많이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성을 표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케스너 학장은 성화 봉송 릴레이를 위해 서울에 머무는 동안 한국인 동문들과의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다.

2018 년 평창동계올림픽은 2 월 9 일 개막하며 2 주간 진행된다. 끝.